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,

저는 성 추행으로 희생당하신 모든 분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리며, 자신을 보호 해줄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가장 참기 힘든 배신을 당한 분들께 감히 용서를 청합니다. 저는 특히 사제, 부제, 남녀 수도자, 각 본당의 봉사자 및 직원들에게 성추행 당한 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을 전합니다. 또한 성 추행을 겪으신 분들의 영적 및 심적 치유를 위한 개인적 책임감을 진실히 통감하고 있습니다.

모든 이를, 특히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알링톤 교구의 숭고한 의무이며, 저는 이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“*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 강령”* 은 이미 2002년 전 미국 주교회의에서 제정되었습니다. 이 강령은 가톨릭 성직자들에 의한 어린이 성 추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교회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즉 화해, 치유, 책임 소재와 앞으로의 예방을 포함한 지침 등이 들어 있습니다.

교구의 주교로써 저는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교구의 “피해자 지원 사무국” 으로 하여금 희생자들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.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 희망을 되 찾을 수 있고 화해와 용서를 이룰 수 있는 치유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게 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과제라 여깁니다.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언제나 그 분들을 만나 경청하며 대화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

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을 찾기위해 본 교구 웹 주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또 이 분야의 전문 교육을 받았고 많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 지원 사무국의 공동 책임자인 팻 먿 (Pat Mudd), 로사 꼬렐로 (Rosa Collelo), 아넬리즈 싸잎 (Aneliz Sipe)에게 서슴 없이 연락하시면 필요하고 가능한 지원을 충실히 알아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. 교구의 희생자 지원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, 또 희생자들을 위한 저의 기도와 미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내리시기를 간절히 빕니다.

전능하신 주님의 강복이 여러분에게 평화와 위로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,

주님 안에서,

알링톤 교구 주교

미카엘 F. 버빋지